

긴급점검-흔들리는 靑문화수도 **심** 변질된 특별법

## 조직·예산 기형화 사업 축소 운영법인 신설 정부 발빠기

문화전당 연구·교육 기능 삭제 공연·전시공간 전략

광주지역 문화·예술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여온 지역 문화계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광주문화도시 협의회, 광주민예총 등 문화부를 공박하는 성명서를 낸 단체는 줄잡아 20여곳에 달한다. <관련기사 2면>  
성명서는 모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법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건립을 비롯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책사업으로서 위상, 국가적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해놓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헌법'이다.

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극적 조항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문화전당을 직영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전당의 운영을 신설할 특수법인 '아시아 문화원'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지역 문화단체는 이를 "정부가 문화전당 건물만 짓고 발을 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도 "아시아 문화원에 문화전당을 맡기면 국책사업의 위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은 "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원에 위탁하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부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화전당의 기본 법령에 명시된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연구·교육 기능을 삭제하고, 교류·협력 기능만을 담당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 문화계는 이를 "퇴행적 법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연구·교육 기능이 법에서 빠지면 문화전당은 결국 문화산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연구 기능의 상실은 문화전당이 공연·전시공간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예기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개정안에 국책사업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내용도 들어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여타 조항에서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을 삭제했다. 이는 법령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전당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인에 맡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문화전당 운영예산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더위 가르며... 시원한 수상스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13일 영광군 불갑저수지에서 한 동호회원이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상스키를 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절전'에 기댄 전력난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부실한 수요예측·원전비리 등 국민·기업 불만 팽배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난이 예고된 12일과 13일 산업계와 각 가정의 절전 노력에 힘입어 전력위기 고비는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관리와 비리 발생, 부실한 수요예측 등으로 발생한 전력난을 정부가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3일 전국 2만여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했고, 상당수 기

업은 의무절전으로 생산 차질을 무릅쓰고 조업을 단축했다. 금융권도 단축근무에 들어갔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4~5% 전력을 줄이는 등 시민들은 폭염을 참고 견디며 절전 노력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11시19분 예전력수급경보 1단계 '준비'(예비력 400만~500만kW)가 발령됐으나 이후 경보 단계가 더 강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절전운

동이 이어지면서 '사고 친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라는 원성과 불만이 시민과 산업계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 올 여름 전력위기의 가장 큰 직접 원인은 지난 5월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제공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제어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가동을 멈추면서 300만kW의 전력공급이 끊겼다. 이 원전 3기는 10월이 돼서야 재가동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윤석 사무총장 소환  
수영대회 보증서 위조 수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치위원회의 핵심 고위책임자 김윤석 사무총장을 13일 오전 전격 소환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3일 오전 9시50분께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유치위 6급 직원 함모(여·44)씨의 정부보증서 위조 과정에 김 사무총장이 언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김 사무총장의 광범한 신경전이 계속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김 사무총장은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밤늦게 귀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자율형사립고 성적제한 폐지 2015년부터 '선지원 후추첨' 선발

중학교 내신 30% 이내의 성적우수자만 선발했던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을 없애고 추첨으로 뽑게 됐다. 또 학력 신장 등으로 공립고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13일 발표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

리고, 자율고·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광주 송덕고·송원고 등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된다.  
비평준화지역의 인천 하늘고·경기 응원외고·전안 북일고·경북 김천고·아산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

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광양제철고·상산고·민족사관고·하나고·현대중운고·포항제철고 등 옛 자사고 6개교는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한다.  
광주제일고·광주고·상일여고 등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상일여고는 2015년, 광주고와 광주제일고는 2016년부터 일반고가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신생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생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민야구대회**  
2013. 9. 1~11. 17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1. 참가팀수 : 천왕·지왕·인왕·호남 토너먼트 각16개팀(총 64개팀)  
2.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1) 천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2) 지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3) 인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4) 호남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주 최 | 6 광주일보사  
| 주 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 지 원 | 경륜·경정 적금  
| 문 의 | http://www.kwangju.co.kr, 062-220-0541